

■ 블랙먼데이 주가 대폭락

“5일만에 반토막…가진것 다 던졌다”

주가 1900 붕괴…170조 사라져 “우량주도 신주도 약 없어” 공황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강타한 8일, 전세계 경제에 극심한 공포가 드리워진 탓에 ‘블랙 먼데이’가 한국에서 현실화됐다.

주가지수가 출렁거리 올해 첫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했다. 장중 한때 14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졌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30포인트(3.82%) 내려간 1869.45로 장을 마감했다. 닷새간 코스피는 302.86포인트 빠졌고 시가총액은 170조4906억원 줄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00.00까지 폭락했다. 이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했고 코스닥시장에도 서킷브레이커가 내려졌다.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의 한 증권사 객장을 찾은 40여명의 투자자들은 절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했다.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이는 듯했으나 오후 들어 큰 폭으로 하락반전하자 마감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못한 투자자들의 표정은 내내 어두웠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투자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주식시장을 논의하기 바빴고, 증권사 직원들

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 모니터를 주시하며 낙폭을 지켜보아야 했다.

객장을 지키던 투자자 신모(여·48)씨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는 주식 모두 손절해 했다”며 “장을 보고 놀래서 막 던질 수 밖에 없었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투자자 김모(여·52)씨는 “보유중인 주식들이 5일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믿었던 우량주도, 신주도 다 필요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종목을 체크하면서 부지런히 전광판과 컴퓨터 사이를 오가던 박모(46)씨는 “가슴이 벌떡거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손절매 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심해 계속 지켜보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쉽지 않다. 외국인인 닷새째 매도로 일관했고 개인도 70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7% 이상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조심스레



속 타는 객장

8일 오후 처음으로 매도 ‘Side Car’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며 코스피 지수가 전일보다 74.30포인트(3.82%) 내려간 1869.45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 금남로 한 증권사 객장에 모인 투자자들이 전광판을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점쳤다.

교보증권 광주지점 김기관 차장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의 9·11 사태 당시와 비견될 정도로 주식시장이 단기간 급락하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은 옵션시장이 전세계 1위로 투기적 목적이 강하다 보니 유독 다른 나라보다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도 신용등급 위기설이 돌고

있다”며 “특히 이탈리아는 8~9월에 대규모 국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재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코스닥 8일 주요 기록

5일간 코스피지수 -302.86p (-13.94%) 하락
5일간 코스피시총 170조4906억원 감소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정지) 2009년 1월 28일 이후 첫 발동
5일간 코스닥지수 -81.7p (-15.01%) 하락
5일간 코스닥시총 15조8990억원 감소
서킷브레이커(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 2008년 10월 24일 이후 첫 발동

■ 전문가 조언

“투매 가담 말고 시장악재 사라질때까지 기다려라”

지난주 국내증권시장이 미국 부채한도협상 이후 막연한 불안감에 의해 하락했다면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사상 초유의 악재가 반영된 월요일에 코스닥 시장은 장중 10% 이상 하락하며(서킷브레이커가 발동) 최근 5영업일 동안 82P(-15%) 하락하였고 코스피시장도 장중 7.3% 하락하며(사이드카가 발동) 최근 5영업일 동안 303P(-13.9%) 하락해

186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다.

코스피시장은 지난 2008년 10월 리먼브러더스사태 이후 5영업일 기준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를 대체할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이미 최악의 악재가 나왔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급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는 투자의 기회라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투자자들은 미국

의 더블딕 우려와 함께 대세하락의 시작이므로 현금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최근 5일간의 하락은 매우 이례적이고 과다한 하락이며 오늘 장중 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들의 순매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근하락으로 손실편이 확대된 신용거래계좌의 반대매매성 물량으로 판단된다.



〈정계두〉

주요국가의 정책공조와 미국 FOMC 회의결과등을 보면 시장의 반응을 기다렸다 시장대응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주식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 금일 장중 저점을 기록한 1800선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급락에 따

른 반등매수 구간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07년 이후 5영업일간 10%이상 급락을 보인 두차례 모두 익일부터 급반등으로 전환되었다. 1950~2000포인트를 목표로 기관과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더블딕 우려와 차익 실현물량으로 2000포인트 위에서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 정계두 부지점장〉

환율 40일만에 1,080원 복귀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코스피 급락의 영향으로 단숨에 1,080원선으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8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10원 오른 1,0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증가 기준으로 1,080원대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6월28일(1,083.50원) 이후 40여일만이다. 개장가는 1,072.40원이었다.

환율은 개장 초 미 신용등급 강등 악재에도 비교적 제한된 상승 속에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수출업체가 환율 상승에 따라 고점 매도 성격의 네고 물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오전 중 1,060원대 후반에

서 제한된 등락을 거듭했지만 오후 들어 급등세로 돌아섰다.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개인 투매로 장중 한때 7% 넘게 폭락하자 환율도 이에 맞춰 상승폭을 확대한 것이다.

코스피 폭락에 따라 오전 중 관광세를 유지하던 역외 시장참가자들까지 오후 들어 달러 매수에 나서면서 환율 급등세를 부채질했다.

서울환시 마감 무렵 엔·달러 환율은 전장 뉴욕 대비 0.63엔 떨어진 77.81엔을 기록했고, 유로·달러는 1.4363달러를 나타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1,391.39원이었다.

/연합뉴스

저축銀 ‘PF 부실’ 3조 추가손실

8곳 한때 ‘적기시정조치’ 분류…박선숙 의원 금감원 내부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탓에 저축은행들이 3조원가량 추가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결과 8개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5% 미만으로 나타나 한때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저축은행의 정상화 조치) 대상에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내부보고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은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필요적립금 가운데 3375억원과 1조5474억원씩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000억원이 추가됐다.

저축은행들이 전체 자기자본(5조 1000억원)의 약 60%에 달하는 3조 원을 추가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지금까지 저축은행들의 자체 건전성 분류가 ‘영터러’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경영진단은 PF 대출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놓고 진단반과 저축은행 사이의 줄다리기가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전성을 엄격히 분류해 최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지만, 저축은행들은 당국이 정상적인 대출까지 부실로 분류하려 든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PF 전수조사에서 부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5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분류됐다. 이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3곳은 결국 영업정지됐다.

올해 전수조사에서도 8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캠프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조치를 모면했다.

그러나 경영진단 결과 충당금 적립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하반기부터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대거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연합뉴스

금값 또 최고치

세계 경기침체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이 8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700달러를 넘어섰

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 가격은 장중 3.1% 오른 온스당 1천702.70달러를 기록했다.

은 선물 가격도 5.7%나 급등했다.

/연합뉴스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탕기 홍삼 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 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소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한/식/뷔/페
6,000원

고가 한식뷔페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빈번

구) 광주은행 본점
구) 한국은행 금남동점

광주시 **고 가 약소리탕**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웰드덕 쥬**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순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